PDF 다운로드

한의약人

“진짜 쌍화탕은 이런 맛이구나!”
현대의 기술로 전통 한방차의 가치를 빛어내다.

더쌍화 김득수 대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축적된 한의약의 지혜는 현대인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쌍화차는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지만,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깊이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더쌍화’의 김득수 대표는 전통 처방의 원리에 주목했다. 25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전통의 맛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K-웰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그를 만나 비전을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더쌍화 대표 김득수입니다. 한방차 사업에 뛰어든 지 11년, 그리고 이를 체인화한 지는 약 9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국내에 62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진출에 이어 미국과 베트남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쌍화’는 어떤 계기로 설립하게 되었나요?

1999년 한 장소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곳은 한의약과 밀접한 공간이라, 당연히 한방차를 대접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흔히 보는 피로 회복제를 주지 않겠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한방차를 대접하는 것이 왜 당연하지 않을까?’, ‘왜 한방차 전문점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카페도 흔하고 커피 체인점도 수없이 많지만 우리 몸에 이로운 한방차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전무했으니까요. 누군가는 한방차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강한 영감이 들었고, 그 해 12월부터 쌍화차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목표로 쌍화차 개발에 몰두했는데, 이미 들어가는 한약재가 잘 알려져 있어 특허 취득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2021년, 새로운 제조 방법을 개발해 13가지 특허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개발한 제조법을 기반으로 전통 한방차를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까지 널리 알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25년의 연구 결과물인 더쌍화의 쌍화탕만이 가진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더쌍화의 쌍화차는 단순히 약재를 달여 내는 것을 넘어 현대 기술과 전통의 지혜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쌍화탕은 중국 송나라 의서 〈태평혜민화제국방〉에 처음 나옵니다. 당시 왕명으로 전국에 비전되어 온 처방약을 수집한 책인데, 저는 이 책에 나온 제조 방식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더쌍화는 재래식 약탕기에 직접 불로 20시간 이상 달이는 방식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약재의 유효 물질을 추출하는 최선의 방식을 연구하여 최대의 약효를 낼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여 균일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 쌍화차는 피로 회복과 빈혈, 도한증, 감기 예방 등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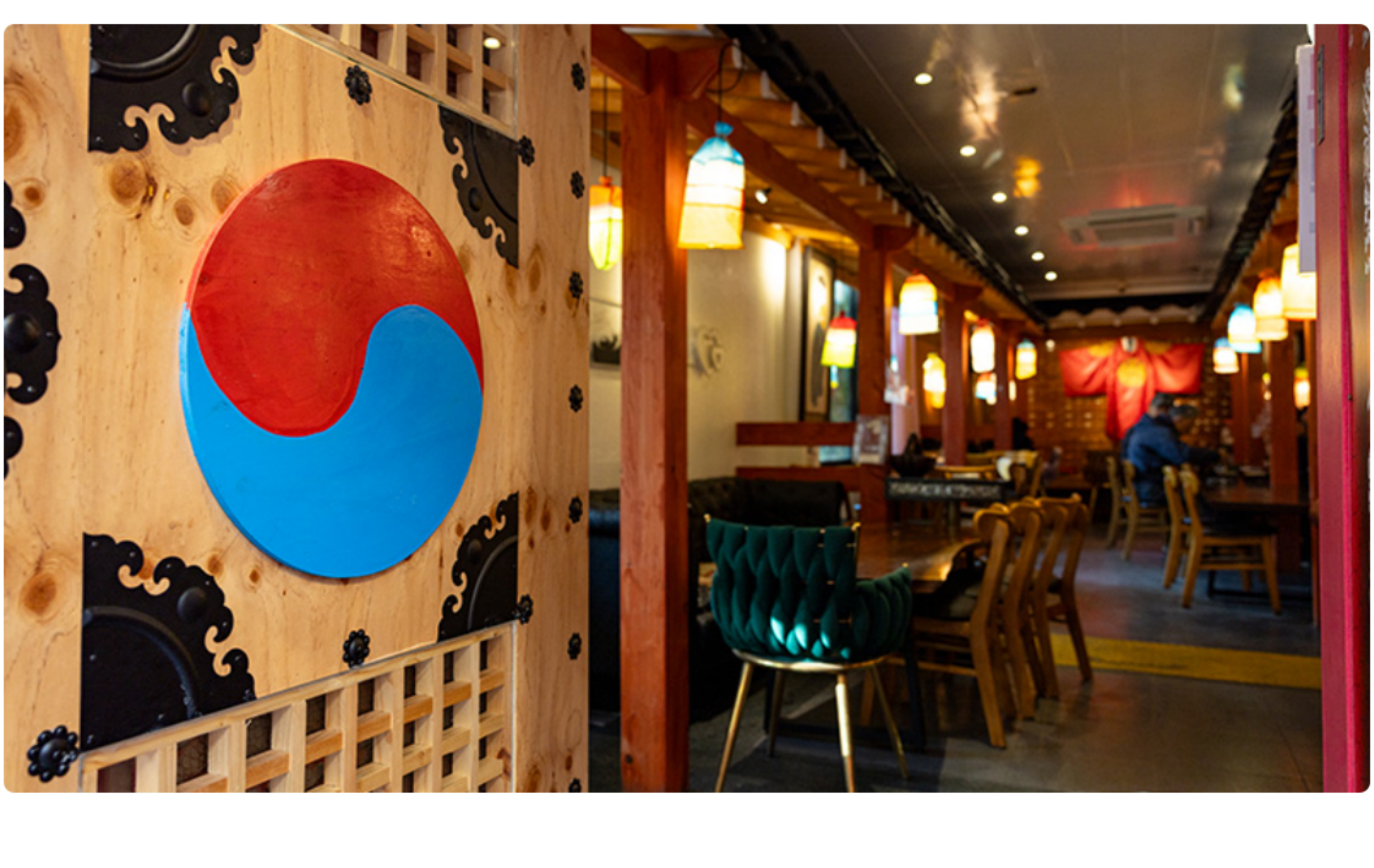
* 도한증(盜汗症) : ‘도둑처럼 몰래 나는 땀’이라는 의미로, 잠자는 사이 흘리는 식은땀. 심할 경우 이불이나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림.

오프라인 매장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요?

매장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쌍화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쌍화차 외에도 체질에 따라 녹용, 홍삼, 백수오 등을 첨가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을 위해 특정 약재를 뺀 개인별 맞춤형 쌍화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쌍화차 메뉴도 있습니다. 특히 ‘쌍화설빙’은 차가운 설빙을 먹으면서도 속은 따뜻해지는 신개념 디저트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쌍화차를 활용한 카푸치노, 라떼, 스무디 등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상차림’인데요,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선생님이 중요성을 강조한 다섯 가지 음식을 쌍화차와 어울리도록 구성했습니다. 미나리, 무, 팥, 마, 그리고 숙성 꿀로 구성된 다과는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 쌍화차의 풍미를 돋우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쌍화차와 다과의 효능과 먹는 순서를 직원들이 직접 설명해 줌으로써 귀한 약을 대접받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객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계란이나 잣, 대추와 같은 고명이 없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통 쌍화차에는 고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오히려 차의 향과 맛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끼시던 분들도 설명을 듣고 나면 전통 방식을 받아들이고 ‘진짜 전통 쌍화차는 이런 방식이구나’하고 이해해 주십니다. 더쌍화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매장을 찾는 고객 중 20% 정도는 외국인일 정도로 해외 방문객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더쌍화를 홍보해 준 덕분인데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원해서 방문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쌍화차를 즐깁니다. ‘한국 차는 이런 맛이구나’ 하고 새로운 문화에 즐거움을 느끼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쌍화차에 만족해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와이에서 온 부부가 처음 맛본 쌍화차에 크게 만족해, 며칠 연속으로 지인들을 데리고 계속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느덧 창업 11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통 한방차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약재 법제(法製)과정 등 저희가 고수하는 전통 방식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더쌍화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 효능이 뛰어난 음료 종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건강 디저트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더쌍화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국의 대표 K-웰니스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의약 기반의 제품 개발과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약재는 단순히 섞거나 달인다고 효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으로 구전된 잘못된 상식을 지식으로 오해하여 잘못 활용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야만 제대로 된 약효를 발휘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